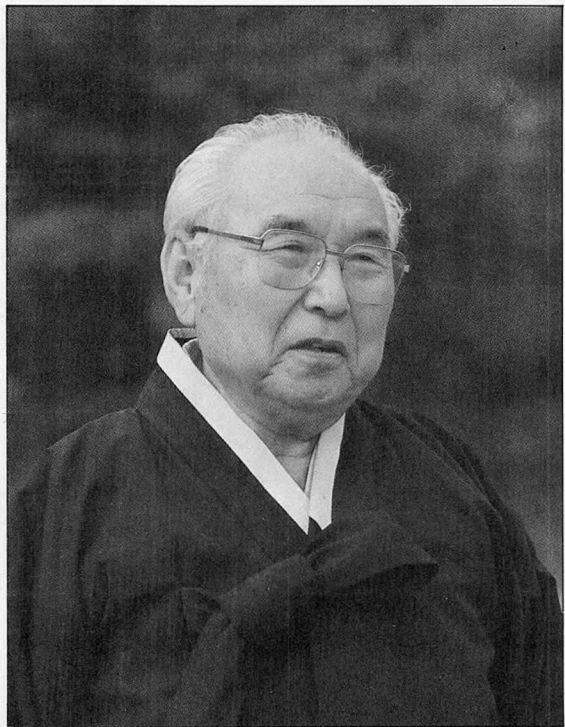


# 잊혀져가는 옛말의 솜씨 좋은 복원

## 「민족생활어사전」 펴낸 이훈종박사



지나간 연대의 풍물을  
집대성해 글과 직접 도해한  
그림으로써 온전히  
복원해낸  
「민족생활어사전」은  
풍요로운 우리말을 구사해  
글을 쓰고 싶어하는  
모든이에게 큰 도움을 줄  
역저로 평가된다. 3천여  
표제어들을 저자 자신의  
기억과 가치관마저 정보  
속에 용해시켜 서술한 이  
책은 근대화의 밀물에  
침수된 옛문화를  
하나하나, 흥미있게,  
건져내고 있다.

이훈종박사.

우리 고유의 옷차림 중에서 저고리와 바지, 적삼이나 고쟁이를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풍채바지’ ‘두렁이’ ‘말기’ ‘다리속것’ 등은 어린 시절에 직접 입어본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기억의 빨랫줄 저편에서 희미하게 펼쳐지는 옷돌일 것이다. 하물며 상표조차 떼지 않은 모자를 쓰고 나오는 가수들이 보여주는 그 신선함과 새로움에 환호작약하는 ‘뉴키즈’는 민속박물관의 골동품쯤으로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풍채바지는 “어린아이들이 입게 뒤를 터서 지은 바지”다. 앞은 막고 뒤를 여자바지처럼 여미게 하여서 대소변을 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옷이다. 말기는 “옛날 식으로 젖을 눌러 동이던 브래지어”이다. 다리속것은 “혹분비물로 바지 밑이 더러워질까봐아서 입는데 바지나 고쟁이 속으로 살을 가려서 옆허리에 매는 옷”이다.

### 450여년 집념으로 집대성한 생활용어사전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쓰였던,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도 쓰이는 갖가지 용품과 언어들에 그 쓰임새와 유래와 그림을 곁들여 소개한 「민족생활어사전」이 李勳鍾(전 건국대 국문과 교수) 박사에 의해 한길사에서 상재됐다. 우리의 잊혀져가는 생활어를 정리하고 우리말의 발골작업에 평생을 바쳐온 이훈종박사가 연구조사 작업의 성과를 집대성해 약 3천여 표제어를 풀이한 이 책은 올바르고

풍요로운 우리말을 활용해 글을 쓰고 싶은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을 줄 역저로 평가된다.

또한 가장 농축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저자 자신의 추억과 가치관마저 정보 속에 용해시켜 서술해 주목을 끈다.

이러하면 ‘눈두덩’의 사전적 정의는 “눈 언저리의 두두룩한 곳”이었지만, 「민족생활어사전」은 거기에 더 보태어 “눈두덩이 소복하고 팽팽하면 사람이 독하다고 하는 것이고, 여자가 이 부분이 파르스름하면 독부라고 하는데, 요새는 일부러 파랗게 칠해서 화장을 하니 모를 일이다”라고 적는다. ‘서재의 세간살이’ 항목의 ‘책상’이라는 표제어는 “책을 펼쳐놓고 단정히 앉아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낭독하는 상이다. 그러기에 책 한 권을 펼쳐놓을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다. 서랍이 달려 있는 것을 특별히 ‘구설합책상’이라고 한다. 절간의 경상(經床) 형식으로 된 것도 구애없이 썼다”고 서술된다.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체의 문장에 우리의 풍속과 저자의 ‘훈계’까지 적나라하게 곁들인 서술방식은 전대미문의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성사범 학생시절 풍경화로써 ‘鮮展’에 입상했던 경력을 지닌 그의 그림솜씨가 각 표제어들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이 책의 자랑거리이다. 일례로 ‘침방과 규방의 세간살이’ 항목의 ‘손

치기’라는 표제어는 “마전한 옷감을 광목 같으면 곱쳐 접어서 차곡차곡 접는 행위”로 설명되고 끝이어서 “이렇게 손을 쳐서 곱접은 옷감을 다듬잇돌에 얹어서 두들겨내는 것”이라고 부연된다. 여느 「국어대사전」의 설명보다 훨씬 자상하고 감칠맛나게 풀이됐지만 비등점 직전의 물처럼 안타깝지만 할 뿐 실감으로 다가오는 설명은 되지 못한다. 이때 圖解가 제시됨으로써 갈증이 해소되며 말그대로 뇌리에 각인되는 ‘민화’ 하나를 갖게 된다. (그림 참조)

이훈종씨가 ‘우리’의 ‘언어’와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출생적부터이다. 1918년생인 그는 “3·1운동 당시에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똥 싸고 울 때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을테니 그게 만세가 아니겠는가”며 박장대소한다. “말고 함께 배웠고, 보는 대로 그렸다”는 그림그리기 취미 역시 지나간 연대의 풍물을 온전히 복원해낸 이 사전의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언어감각과 문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 “노인네들 담배연기 속에서 밤새도록 잔심부름해가며 옛이야기를 귀동냥했다”는 예의 ‘사랑방 체험’이다.

이훈종교수의 생애는 「민족생활어사전」을 낼 수밖에 없는 생의 기미와 깃새들로 점철돼 있다. 유아시절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국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던 그같은 우연들은 유년시절에까지 이어진다. “시골(지금의 성남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농촌과 도시를 두루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시기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상이 급속히 ‘근대화’ 되어가는 전과정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 듯 싶다”는 점이 그러하거나, 당시 서울집은 현 재동국민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숙부가 “지금의 대학교수보다 名士인 중앙고보 교사”였던 덕분에 ‘사랑방 체험’이 ‘살롱 체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미시적 우연들이 거시적인 필연으로 현현되는 데에는 개인의 의지와 운명적 만남이 필요한 듯 싶다. “사범학교에 진학해서도 미술에 취미를 붙이는 한편으로, 선배들을 따라 방언집과 민요집을 엮는 일에 일종의 사명감과 자랑 같은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의지와 그 경성사범 시절 국어교사였던 조윤제 박사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총독부에서 만든 교재가 워낙 엉성하고 조

악한 것이어서 선생께서는 직접 만든 프린트물 교재로 강의를 하셨지요. 많은 자극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어른을 모시고 기거하며 공부하는 사이,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자연 많은 상식을 얻어들이며 자란 것이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 그림 곁들여 3천여 표제어 풀이해

해방 후, 그는 미술과 국어 사이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한다. 점차 “국어교재의 도해를 맡을 이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어와 미술간의 행복한 만남을 도모하던 중 조윤제선생이 결정적인 ‘조언’을 한다. “나라를 찾았는데 우리말 해야지.”

근대화의 밀물에 침수된 우리의 옛문화를 건져올려 햇빛에 내어말리고 있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그 이후 45여년이 필요했다. 해방 후 “동지들과” ‘국어교육연구회’를 창립하여 회지를 낼 적에 교재에 나오는 국학자료를 도해해 신는 일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던 그는 “뜻하지 않은 전란으로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머무는 동안” 절망과 아픔을 삭여내기 위해 자료 하나 없이 기억만을 더듬어 「국어학습도보」를 펴내게 된다. 그 뒤 증보를 거듭해 55년경 「국학도감」(일조각 刊)을 낸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그는 「국학도감」이 학생들의 학습참고서로 넓고 깊게 활용되기를 기대했지만, 오래되지 않아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된다. “나의 여러 저작 중에서 가장 뜻있는 작업으로 꼽는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평하는 그 책이 그러나 그림만 나열되고 설명이 없어 불편하며 큰 소용이 되지 못한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30년 가량이 지나 80년에 들어 “이 점을 함께 걱정한 이어령(전 문화부장관)씨가 당시 그가 주관하던 「문학사상」에 그림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붙여 연재하자는 제의를 해와” 그간 정리해둔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어령 선생과의 협의는 2년여의 연재를 마치는 대로 단행본으로 내자던 것이었는데, 형편이 바뀌어 그 일은 중단되고 오래 잠잠하다가, 이번에 한길사 김연호 사장 눈에 띄어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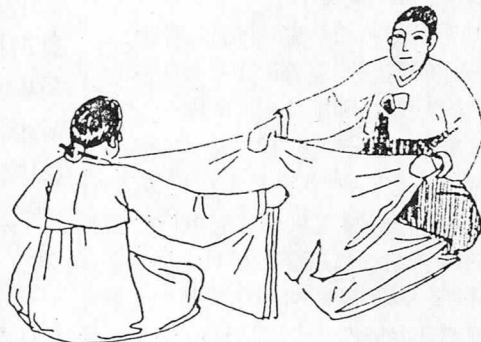
“단절된 역사를 이어주고 잊혀진 문화를 되살렸다”는 평을 듣는 이 책은 생활용어가 26개 항목으로 분류되고 3천여개의 표제어와 그에

상응하는 그림들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수사전'인 관계로 항목분류는 '공인된' 원칙에 의거했다기보다는 저자의 감각에 의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책의 뒷부분에 가나다 순의 '찾아보기'를 마련해 독자의 수고로움을 많이 덜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26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람 몸, 옷차림, 머리쓰개, 지위와 직책에 따른 옷, 바느질 도구와 노리개, 표신(標信), 무늬와 도안, 집, 창살의 예술, 열두대문 큰집, 세간살이, 서재의 세간살이, 침방과 규방의 세간살이, 부엌 세간살이, 베짜기, 바깥방에서 하는 일, 농기구,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연모, 공예, 등불, 여행, 성곽, 배와 가마와 의장(儀仗), 무기와 군장(軍裝), 묘제(墓制)와 장의(葬儀), 종교와 의식(儀式) 등이다.

이 대항목들은 다시 7, 8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된다. '농기구'의 경우, '땅을 일구는 데 쓰는 기구' '포장(圃場)을 관리하는 기구' '물대기에 필요한 시설' '거름을 모아서 주기 위한 기구' '타작에 사용되는 기구' '수확물을 갈무리 저장하는 설비' '소를 시켜 끌게 하는 농구' '소에 실어서 나르는 기구'로 나뉜다.

이러한 소항목들은 마지막으로 각 15, 16개 정도씩의 표제어로 갈린다. '땅을 일구는 데 쓰는 기구'에는 따비, 쟁날 따비, 캄대와 창, 팽이와 괴통·괴구멍, 등쌈, 가짓잎팽이와 토란잎팽이·수숫잎팽이, 너팽이와 나뭇팽이, 곡팽이와 황새팽이, 쇠스랑, 삽, 종가래, 화가래, 가래, 군두, 삽가래, 얼렁가래, 가렛밥, 행가래, 맥질판, 살포, 삽팽이, 개똥삼태



손치기 하는 모습.

기와 팽이, 벽채, 호미, 자락과 등자걸이, 슝베와 보임, 잔디호미, 원호미, 꽃삽과 모좁삽 등의 표제어가 있다.

'행가래'는 "가래로 흙을 파기 전, 빈 가래로 손을 맞춰보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적 정의'가 우선 내려진다. 이어서 "앞으로 쪽 미끄러져나갔던 장부를 회수할 때도 줄은 계속 팽팽하게 탕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낮잠자는 친구의 손발을 갈라 잡고 휘둘러서 괴롭혀주는 장난을 '행가래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민속학적 정의'를 부기, 「민족생활어사전」만의 배타적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한다.

#### 침수된 우리문화 햇빛에 내말린 역지

건국대 문리과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우리문화연구원장인 성균관 고문인 박박사는 "당나귀가 당나귀소리를 내는 일은 당연하다"는 '우리것주의자'이다.

그가 후학에게 당부하는 첫번째 말은 "뿌리 깊게 생각하라"는 것.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세관 없이도 살 수 있는 고장, 구원의 손길(신)을 설정하지 않아도 살 만한 땅이다. 명당이었기에 무수히 외침을 겪었으며,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한 용기로써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자손을 통해, 정신은 교육을 통해 영원히 삽니다. 인간은 혼자라도 이미 홀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삶에 무게가 생깁니다."

이러한 유교적 사고방식을 지닌 그는 성균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함의하듯 때로는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실사구시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꽃병 대신 소주병에

꽃을 꽂아놓는다거나, 서재의 소파가 밤에는 침대로 쓰인다거나, 이사다닐 때 짐싸는 수고 없이 책장째 옮길 수 있도록 판형별로 짜맞춘 책장을 사용한다는 점 등은 그 훌륭한 예가 된다. 그리하여 그가 후학에게 당부하는 두번째 말은 "들뜨지 말고 실속을 차리라"는 것. "내면의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지 허례와 허식은 "내부의 적"일 따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의 쥐 박멸 방법' '훈장 대신 돈을 받은 장수 이야기' 등 풍부한 일화와 예를 들어가며 '실용주의'를 역설한다.

그리고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일생의 기념작이 되는 이 사전은 "바른 글 쓰기는 인격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민속어는 우리문화의 뿌리라는 신념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막상 책을 펴내고 나니 '소걸음처럼(牛步)'이라는 자신의 호에 걸맞게 '뛰지도 서지도 않았던 삶'이 주마등처럼 추억된다며 웃는다.

옛제도와 옛풍속을 설명한 「囑誰錄」, 전래笑話집인 「菴食記」와 「再探記」, 「국학도감」, 「한자의 바른 길 빠른 길」 등 5권의 저서와 「중국고대신화」 등의 역서를 낸 이훈종씨는 앞으로 "유희, 의료행위, 연중행사 부분을 보완하고, 도해를 할 수 없는 음식 부분은 사진이라도 수록해서 「민족생활어사전」을 증보하는 데 남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욕심을 좀 부린다면 「삼국지 인명사전」을 기초로 해 등장인물들의 말들을 정리하는 「인용고사사전」을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고는 싶지만 배우기엔 늦은 나이"라며 다소 쓸쓸해하면서.

— 김중식 기자

### PR論

尹燾重 지음 / 8,500원

PR유사개념의 혼동을 명료하게 풀이하면서 연구영역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을 선진 각국과 비교 검토하고 정부 PR, 기업 PR, 단체 PR 등 모든 분야의 이론과 실례를 논함으로써 독자층을 넓히고 있다.

### 제국주의와 언론

貝沃烈 지음 / 7,500원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치외법권하에서 언론활동을 전개한 영국인 叢說과 大韓每日申報에 대한 외교사적 연구를 통해 대한제국 말기의 정치·사회상,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 한국민족주의의 양상 등을 상세히 밝힌 시대사 연구.

###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변동

고란 헤데이브로 지음 / 安光植 옮김 / 3,000원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변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론과 실제적 측면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발전이론으로 역사적인 고찰을 하면서 개혁과 발전의 사회변동을 위한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제임스 레스턴 지음 / 安光植 옮김 / 2,400원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였던 저자가 1966년 뉴욕시의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 「신문의 포열(砲列)」이란 원제로 출판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신문과 정부간에 생기는 모순과 갈등, 마찰을 예증·서술하였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 312-4312